(2014. 10. 27(월) ~ 11. 1(토) / 6일간)

#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전라북도의회
##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미얀마 현황 ····· 4

Ⅲ. 연수기관별 주요 활동내역 ····· 12

1 양곤 KB한국어학당 방문 ····· 12

2 미얀마 KOICA 주재원 방문 ····· 15

3 새마을복합센터 및 동파운지 마을 방문 ····· 18

Ⅳ. 시사점 및 연수성과 ····· 20

1 시 사 점 ····· 20

2 연수성과 ····· 20

Ⅴ. 연수후기 ····· 21

# Ⅰ 연수개요

## □ 연수목적

○ 전라북도 자원봉사 정책 발전 및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 국내 자원봉사 및 해외자원봉사를 통한 전라북도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지역사회발전운동(새마을운동) 및 해외협력 현황 견학을 통한 사례 분석으로 민간단체 국제교류 기능 강화

○ 저개발국 빈민들의 인권보호 사례를 견학하고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제도(인권복지포함)에 대한 의정활동 기능 강화

## □ 연수개요

○ 기　　간 : 2014. 10. 27(월) ~ 11. 1(토) / 4박6일

○ 연 수 국 : 미얀마

○ 연수대상 : 16명(행정자치위원 7명, 정책보좌 5, 수행 4)

○ 주요방문기관 : KOICA주재원, KB한국어학당, 새마을복합센터(동파운지 마을) 등

## □ 연수내용

○ KOICA주재원, KB한국어학당 등 해외자원봉사 사례 견학

○ 새마을복합센터(동파운지 마을) 등 해외협력사업 현지방문

○ 빈민촌 방문 등 저개발국 인권문제 실태 파악 및 사례 수집

## □ 연수자 명단

| 소 속 | | 직위 | 성 명<br>( 영 문 ) | 성별 | 비 고 |
|---|---|---|---|---|---|
| 계 | | | 16명 | 남 11<br>여 5 | |
| 전라북도의회<br>행정자치위원회 | | 도의원 | 김 연 근<br>( Kim Yeon Geun ) | 남 | 위원장 |
| | | 〃 | 양 성 빈<br>( Yang Sung Bean) | 〃 | 부위원장 |
| | | 〃 | 강 용 구<br>( Kang Yong Gu) | 〃 | |
| | | 〃 | 김 종 철<br>( Kim Jong Chul ) | 〃 | |
| | | 〃 | 송 성 환<br>(Song Sung Hwan) | 〃 | |
| | | 〃 | 정 진 세<br>( Jeong Jin Se) | 〃 | |
| | | 〃 | 허 남 주<br>( Her Nam Joo ) | 여 | |
|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 행정자치<br>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김 동 룡<br>( Kim Dong Ryong) | 남 | |
| | | 직 원 | 김 갑 수<br>( Kim Kab Soo ) | 〃 | |
| | | 〃 | 전 영 옥<br>( Chon Young Ok) | 여 | |
| | | 〃 | 이 재 연<br>( Lee Jae Yeon ) | 〃 | |
| | | 〃 | 최 고 운<br>(Choi Go Un) | 〃 | |
| | 총무담당관실 | 총무담당관 | 원 종 율<br>(Won Jong Eul) | 남 | |
| | | 직 원 | 박 린<br>(Park Lin) | 〃 | |
| | | 〃 | 박 미 권<br>(Park Mi Kwon) | 〃 | |
| | | 〃 | 김 미 진<br>(Kim Mi Jin) | 여 | |

## □ 연수일정

| 일 자 | 연수지역 | 주요일정 | 비 고 |
|---|---|---|---|
| 10.27<br>(월) | 출 발 |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1일차 |
| 10.28<br>(화) | 양 곤 | ○ 양곤 KB한국어학당<br>○ 미얀마 KOICA 주재원 | 2일차 |
| 10.29<br>(수) | 양 곤 | ○ 새마을복합센터(동파운지 마을) | 3일차 |
| 10.30<br>(목) | 바 고 | ○ 미얀마 현지 문화 체험<br>- 불교 수도원 바루공양 견학 | 4일차 |
| 10.31<br>(금) | 양 곤 | ○ 아웅산 순국사절 17위 추모비 참배<br>○ 내셔널 빌리지 시찰(소수민족 테마마을)<br>○ 양곤 국제공항 출발 | 5일차 |
| 11.1<br>(토) | 도 착 | ○ 인천 국제공항 도착<br>○ 전주 도착 후 해산 | 6일차 |

# II 미얀마 현황

## □ 일반현황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최대 국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인구는 5천7백만명으로 135개의 종족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주변의 굵직한 국가들과 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과 접경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인 몬(Mon)족과 꺼인(Karen)족 등 반군이 여전히 활동 중이어서 안보 문제를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2006년 11월 6일 양곤에서 네피도(Nay Pyi Taw)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였으나 정부 기관 본부(Head Office)의 이동만 있었다. 각국 대사관은 여전히 양곤에 있으며 양곤은 여전히 경제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 약사(略史)

### ① 근대 이전

○ 서기 9세기 버마족이 미얀마에 정착

○ 제1제국 : 1044년 아노여타 왕이 바간에 최초의 통일 왕조를 수립하고 국교를 불교로 하는 국가로 발전했고 1287년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에게 멸망

○ 제2제국 : 1551년 바인나웅 왕이 타웅구 왕국을 수립했고 1752년 몬족에 멸망

○ 제3제국 : 1755년 꽁바웅 왕조를 건설했으나 태국 아유타야에게 점령당함

### ② 영국과의 전쟁

○ 1824년, 1852년, 1885년 3차에 걸친 앵글로-미얀마 전쟁 이후 영국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의 한 주로 편입하고 식민지 분할 통치

### ③ 영국·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

○ 1930년대부터 아웅산 장군 주도로 무장투쟁 본격화

○ 아웅산 장군은 일본 첩보기관의 도움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함께 대영투쟁

○ 일본의 버마 점령 이후 아웅산 장군은 영국과 연합하여 대일 투쟁 개시

○ 1945년 3월 27일 양곤 탈환에 성공(미얀마는 3월 27일이 국군의 날)

### ④ 독립과 군부통치

○ 1948년 1월 4일 독립 선언 및 정부 출범

○ 1958년 네윈 소수 민족 반란 진압 이후 정계 진출

○ 1960년 네윈의 친위 쿠테타 후 민정 이양

○ 1962년 군부통치 시작

## □ 정치·경제

### ① 정치

○ 1988년 민주화 시위진압 이후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약 22년간 군사과도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非)헌법 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장 딴쉐장군)가 최고 통치 기구이다. 6명의 군사 고위 장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대법원장 등을 선임하며 대부분 부처의 장관이 현역 또는 퇴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인 언론 검열과 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 2003~2011년 사이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웅산 수치여사 가택연금 등 군부의 권력이양 거부로 마찰이 많다. 2010년 11월 총선 실시 후 의회가 소집되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2010년 11월 20년 만에 정식으로 실시된 총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미얀마는 이번 총선에서 개표 과정을 외신과 미얀마 주재 외교관에 공개하였다.

○ 그러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이번 선거에 불참했다. 군정이 후원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을 거두고 당선자 가운데 전직 장관 및 장군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애초부터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불공정 선거 의혹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총선이 끝나고 국경지역에서 군정과 총선 결과에 반발하는 정부 반군과의 충돌이 몇 차례 있었다.

○ 군부는 앞으로도 군부의 권력유지가 가능한 '질서 있는 민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던 승려와 학생 조직은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라 현재 군부에 도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정치력은 사실상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 ② 경제

○ 버마식 사회주의의 도입 : '고립과 자력갱생'을 모토로 63년 15,000개 기업 국유화와 외국인 투자금지 및 인도인 20만명 이상을 추방하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안정 속 침체가 계속된 결과 1987년 12월 UN은 미얀마를 최빈국으로 지정하였다.

○ 시장경제체제 도입 :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낮다. (일례로 2004년 쌀 수출 금지조치로 농가 수입 감소와 인플레이션 야기) 2003년 인권과 민주화 문제 및 마약을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가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인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였다.

○ 1988년과 2000년에 2개의 대형 가스전이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만성적인 외화 부족 현상을 해소했다. 2002년 이후로는 천연가스가 최대 수출 품목이다.

○ 외국인의 투자를 희망하면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대 노력 등도 부족하다. 금융・외환・주식 시장의 부재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 ③ 화폐

○ 미얀마의 화폐 단위는 짯(Kyat)으로 MMK(MyanMar Kyat)로 표기하거나 K(Kyat)로 표기하기도 한다. 간혹 책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짯(kyat)을 키아트나 차트, 캬트 등으로 잘못 옮겨 놓은 곳들이 있다. 미얀마식 영어 발음을 따라 짯으로 발음한다.

○ 미얀마에서 현재 사용되는 화폐는 5, 10, 20, 50, 100, 200, 500, 1,000, 5,000짯이 있다. 2009년에 고액권인 5,000짯 짜리 지폐가 생기면서 지갑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새로 만들어진 5,000짯에는 다른 화폐와는 다르게 하얀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 50짯 이하의 잔돈은 대부분의 가게나 식당 등에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잔돈을 받거나 주지 않으며 잔돈에 해당하는 물품(사탕, 휴지 등)으로 대신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

○ 외국인들은 입국과 동시에 미얀마에서 만든 태환권인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로 강제 환전을 해야 했다. 하지만 2003년 6월부터 FEC의 강제 환전 의무가 폐지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FEC는 20, 10, 5, 1 4종류가 있으며 1FEC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 □ 사회 · 문화

### ① 종교

○ 미얀마는 불교 중심의 종교국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체 5천7백만 인구의 90% 정도가 불교 신자이다. 생활 속 깊이 소승불교 사상이 스며있어 전통과 관습 등의 세세한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여타 종교의 영향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부모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 승려와 상의한다. 왕조시대 이래 시골 어린이들은 정식 정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승려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부모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존경하도록 교육한다. 결혼과 사업 투자 등 중요한 부분을 승려들과 협의하고 상의한다.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금식기를 지킨다. 이 기간 중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으며 노인들이나 독실한 신자들은 낮 12시부터 익일 일출 때까지 금식하는 등 종교의식을 거행한다.

○ 이러한 영향력으로 주요 관광지 및 명승지는 불교 파고다(pagoda, 불탑)와 사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승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주요 공직이나 정부기관에서 승진할 때도 당사자 및 배우자의 종교가 불교인지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 보아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가족제도

○ 결혼하면 남자가 처가에서 거주하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다. 가족 중시와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에서 한국과 정서적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 맞벌이가 많다. 정부 및 국영기업의 직원들 중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길거리에 있는 찻집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인 점을 보면 과거 한국에 비해

오히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적이다. 가족계획은 장려하지 않으며 임신 중절수술은 불법이다. 인구 증가율은 2% 수준이다.

### ③ 교육

- 1-4-4-2-3학제(총 14년)로 9년 의무교육이다. 미얀마의 대학교 1년 학비는 15달러 수준이다. 양곤외국어대학교와 만달레이외국어대학교의 미얀마어과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대학입학은 극히 제한적이다.
- 1996년 말 대규모 학생 가두시위 사태를 계기로 군정은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선포했다. 의과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대학 등 일부대학 및 대학원 수업 외에는 정상수업을 모두 중단해 오다 2000년 7월 재개했다. 현재 대학은 단과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집단행동과 시위를 막고자 정부에서 고의로 캠퍼스를 분할해 놓은 것이다.

### ④ 언론

- 언론은 군정의 엄격한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TV 방송사는 공보부가 운영하는 MRTV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미야와디TV 2개사가 있다. 2개사에서 MRTV, MRTV3, MRTV4, MWD TV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3개 방송사에서 주당 10~15편의 한국드라마가 방영된다. 시청률이 높은 저녁시간대에는 항상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 모든 신문은 공보부의 사전 심의 하에 기사 게재가 가능하다. 영문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는 군정이 발간하는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New Light of Myanmar), 미얀마 타임즈(Myanmar Times) 등이 있다. 정치 사회와 관련 없는 스포츠나 연예오락을 다루는 대중용 잡지는 그 수가 엄청나다.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주간지와 200여 개의 월간지가 있다.

## □ 기후 · 민족

### ① 기후

○ 미얀마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열대성 몬순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7.4℃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2,500mm에 달한다. 크게 3개의 계절로 나눌 수 있다.

○ 건기(3~5월)는 미얀마에서 가장 더운 계절로 양곤 시내온도가 섭씨 40℃이상 올라간다. 2009년은 근래 가장 더웠던 해로 43℃ 가량 되는 날들이 많았다. 중심부인 만달레이 마그웨이 지역은 보통 45℃를 넘기도 한다.

○ 우기(6~10월)는 5월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해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온다. 남부에는 3,81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 하지만 내륙 중심부에는 254mm도 채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다.

○ 한기(11~2월)는 날씨가 좋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기간이기도 하다. 낮 기온은 평균 20℃~30℃이고 밤 기온은 10℃~20℃이다. 산악과 고원지역은 0℃이하로 떨어지며 까친주의 북쪽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 ② 민족

○ 민족은 버마족 및 13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만큼 언어도 다양해 240여 종류나 된다. 같은 종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다. 버마족 70여%, 샨족 9%, 꺼인(Karen)족 7%, 라카인족 4%, 중국인 3%, 몬족 2%, 인도인 2%, 그 외 소수 종족이 3%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 샨(shan)족

미얀마 동부 샨주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과 계곡지역에 주로 거주한다. 인구는 400만 명 정도로 태국어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샨’ 이라는 말도 한때 태국을 지칭했던 시암(siam)과 어원이 같다. 미얀마 내의 다른 종족들과 약간 다른 헐렁한 통바지를 주로 입는다.

○ 몬(Mon)족

과거에 왕조를 일으킬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문화뿐 아니라 벼농사법도 버마족에게 전해줬다. 현재는 버마족과의 통혼과 합병으로 대부분이 버마족 문화에 동화되었고 고유의 언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순수 몬족은 약 100만 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몬주와 떠닌다리주 등에 거주하고 있다. 갓 결혼한 신랑은 처갓집에 가서 3년을 산 다음 독립해 나오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 꺼인(Kayin)족

한때는 카렌(Karen)족으로 불렸던 꺼인족은 3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카렌민족자유군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군에 의해 태국으로 내몰려있는 상태다. 꺼인족은 고유의 깃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년 양곤 북부 인세인 지역에 모여 꺼인 뉴 이어(Kayin New Year)를 기념하며 축제를 가질 만큼 민족성이 강하다.

○ 까친(Kachine)족

까친족은 미얀마 최상부 고산지대 에야와디 강 상류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12종의 유사 까친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내에 6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까친족의 종교는 다른 고산족들과 유사하게 희생양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애니미즘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외 인구의 10% 정도는 기독교를 믿는다. 최후의 자식이 혈통의 순수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해 집안의 막내가 상속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 Ⅲ 연수기관별 주요 활동내용

## 1 양곤 KB한국어학당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10. 28(화) 10:00 ~
- 방 문 지 : KB한국어학당
- 면 담 자 : KB한국어학당 학당장 및 관계자

○ 기관소개

- KB한국어학당은 KB국민은행이 BBB KOREA(언어·문화 비정부기구)와 함께 설립한 미얀마 양곤지역의 최대 규모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수료인원 : 87명

○ 방문내용

- KB한국어학당 설립 취지 및 운영상황 청취
-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현지 반응 및 의견 수렴
- 전라북도 해외봉사단 운영을 위한 한국어 봉사 관련 정책자료 수집
- KB한국어학당 방문 기념품 전달 및 즉석 공연 관람

○ 주요 질의응답

- KB한국어학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한학기에 100명 정도, 5개 반(초급, 중급, 고급반) 운영
수업은 10주 과정이며 등록금, 수업료는 무상

- KB한국어학당 학생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학생 구성은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30대 초반까지(18~32세) 이며, 상위 반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음

- KB한국어학당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김치 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 등의 문화행사도 하고 있음

- KB한국어학당을 다니는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인지?

➡ 한국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것이 목표로 어학당에서 2년 정도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3~4급 정도의 실력이 되면 한국대학으로 진학도 가능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현지 한국회사에 취직도 가능함

- KB한국어학당 학생들이 구성한 한국어 관련 동아리는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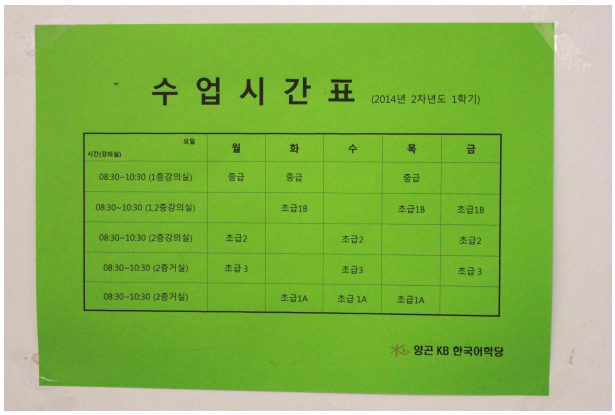
➡ 미얀마 현지 K-POP 인기가 대단한데 자발적으로 K-POP 음악 동아리 및 댄스팀을 만들어 활동중임

## ○ 방문사진


양곤 KB 한국어학당
bbb korea
&
Rodem
in Myanmar


양곤 KB 한국어학당 1주년 기념
2014년도 1학기 한국문화행사




수 업 시 간 표 (2014년 2차년도 1학기)
요일
시간(강의실)
월
화
수
목
금
08:30~10:30 (1층강의실)
중급
중급
중급
08:30~10:30 (1,2층강의실)
초급1B
초급1B
초급1B
08:30~10:30 (2층강의실)
초급2
초급2
초급2
08:30~10:30 (2층거실)
초급 3
초급3
초급 3
08:30~10:30 (2층거실)
초급1A
초급 1A
초급1A
양곤 KB 한국어학당


KB Kookmin Bank
양곤 KB 한국어학당 1주년 기념
2014년도 1학기 한국문화행사
2014.10.24






양곤 KB 한국어학당 1주년 기념
2014년도 1학기 한국문화행사

## 2 미얀마 KOICA 주재원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10. 28(화) 16:00 ~
- 방 문 지 : 미얀마 KOICA 주재원
- 면 담 자 : 미얀마 KOICA 주재원장 및 관계자

❍ 기관소개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l Cooperation Agency)은 1994년 4월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사업 :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해외재난긴급 구호, 민·관 협력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 등

❍ 방문내용

- 미얀마 KOICA 설립 취지 및 운영상황 청취
- KOICA 미얀마 현지 지원실적 및 협력사업 현황 청취
- 해외 자원봉사 사례에 대한 견학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동 역량을 높여 국제사회에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
- 전라북도 해외봉사단 “Happy Friends 전북” 활동사항 소개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위문품 전달

○ 주요 성과 및 논의 내용




▸ 첫째,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도정 접목

- 우리나라가 코이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통계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역량강화사업, IT기반 통계역량강화사업 등이었음
- 통계에 의한 기반구축사업이 미얀마의 상하수도 사업이나 SOC사업들을 진행시키는데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었음
- 이에 착안, 전라북도 통계에 기초한 정책, 시책에 관한 주요 통계생산 관리를 점검할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 통계부서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전라북도 정책방향이나 사업효과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통계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법령 제·개정시,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를 전라북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촉구

▸ 둘째,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미얀마 코이카 자원봉사인력 파견 가능성에 대한 타진결과 코이카에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을 희망하였음

- 현행 대학생 위주의 파견은 가급적 지양하고, 농업·환경 부분 인력파견으로 현지의 식량개선, 농업작물개선을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

○ 방문사진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Myanmar Office
WORLD FRIENDS KOREA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ppiness for All, wit Global KOICA
Project Aid Program in Myanmar
KOICA Aid Program
World Friends Korea in Myanma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ppiness for All, wit Global KOICA
KOICA Aid Program

## 3 새마을복합센터 및 동파운지 마을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10. 29(수) 15:00 ~
- 방 문 지 : 새마을복합센터 및 동파운지 마을
- 면 담 자 : 미얀마 동파운지마을 새마을운동 지도자 및 관계자

○ 기관소개

- 새마을운동 복합센터는 안전행정부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및 현지 확산을 위해 외국에 최초로 설치한 시설로 동파운지 마을 한가운데 1천890㎡의 부지에 연면적 549㎡ 규모로 지어짐
- 센터엔 강당, 교육장, 사무실, 소회의실, 도서관, 컴퓨터실, 새마을금고, 농기계 보관·수리 센터, 보건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현지 새마을운동의 중심점이자 지역주민 교육장, 휴식처, 사랑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방문내용

- 동파운지마을 새마을 지도자들과의 간담
- 새마을운동 복합센터 건립 취지 및 운영상황 청취
- 새마을운동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 동파운지마을 새마을운동 추진현장 견학
-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동파운지마을 지원방안 모색
- 동파운지마을 빈민가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실시

○ 방문사진


















# Ⅳ 시사점 및 연수성과

## 1 시 사 점

○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해외 자원봉사를 통해 타국 주민들과 문화적 사회적 소통을 통한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 및 위상강화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 미얀마 빈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견학함으로써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적 복지제도에 대한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미얀마는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 및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 2 연수성과

○ 도내 자원봉사 활동과 해외사례 등에 대한 현지견학으로 실효적인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도정방향 제시

○ 자원봉사센터의 해외봉사단 활동 사례분석을 통해 봉사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해외 봉사활동 로드맵 정립

○ 지역사회발전운동(새마을운동) 및 해외협력 사업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해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강화로 전북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전라북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도내 새마을회 해외협력사업 사례와 실태를 현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비교해 보고 실효성 및 향후 지원방향성 제시

○ 국외연수를 통해 현지사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사업체)의 미얀마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 방향성 제시

○ 역사와 문화를 현장체험 함으로써 도정 주요시책의 견제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

# V 연수후기

## 시간이 멈춰선,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나라 미얀마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

미얀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버마에서 미얀마로 국명이 바뀌었고, 1983년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 정도 밖에 없던 나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미얀마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김포공항을 연상케 하는 참으로 소박한 공항이었다. 공항을 나와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미얀마는 흡사 우리나라의 60,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정겨운 모습이었으며 이는 나에게 앞으로 이어질 미얀마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가왔다.

미얀마 공식일정으로 처음 방문한 “KB한국어학당” 은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는 양곤 시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좁은 골목을 한참이나 걸어가서야 찾을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혜진 학당장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 분들이 우리 일행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다. 이곳 KB한국어학당은 KB국민은행이 BBB KOREA와 함께 설립하여 미얀마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한국드라마 등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KB한국어학당을 찾는 미얀마 청소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문화가 지닌 힘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으며 이번 기회에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미얀마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한국에서 가지고 온 기타 두대를 선물로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답례로 즉석 연주까지 해주던 미얀마 학생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한국국제협력단,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는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곳 미얀마 KOICA 주재원에서는 우리나라와 미얀마 사이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 미얀마 중장기 지원목표” 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으며,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전라북도 해외봉사단 “Happy Friends 전북” 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해외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전라북도의 해외봉사활동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세 번째 일정으로 “새마을복합센터가 있는 동파운지 마을” 을 방문하였다. 양곤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동파운지 마을은 미얀마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한때는 조용한 시골마을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잘살아 보세”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우리나라가 이곳에 지어준 새마을 복합센터는 미얀마에서 새마을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한국이 지금과 같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로 새마을운동을 꼽고,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고 새마을운동 정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도내 새마을회의 해외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동파운지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또한, 동파운지마을 빈민가를 돌면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내가 일찍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소박하고 순수한 주민들과 아이들의 미소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미얀마의 얼굴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버스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추진하리라 다짐했다.

연수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미얀마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번 국외연수는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 연수였다기 보다는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씨를 지닌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성찰의 시간이었음을 느낀다. 누군가 나에게 미얀마는 어떤 나라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겠다.

“순수한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때 묻지 않은 사람들의 미소로 기억되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 라고